

신규 개봉작 리뷰 히어로물의 신선한 변주, 속편 징크스 갯 '데드풀 2'

1편의 '로맨틱' 에서 '인간애' 로... 가족영화 표방

작품성 · 오락성 모두 잡아
액션 · 코미디 · 드라마
휴머니즘 등 골고루 담겨



'데드풀 2'(감독 데이비드 리치)는 그 어려운 것을 해냈다. 흔히들 말하는 '속편 징크스'를 완벽하게 깼다. 강렬한 액션과 예측불허의 전개가 압권이다.

'데드풀 1'(감독 팀 밀러·2016)를 떠올리기조차 힘들다. 전작이 약 331만명의 관객을 모은만큼 부담감도 상당했을 터. 이를 신선한 발상과 강렬한 액션으로 털어냈다.

작품성과 오락성을 모두 잡았다. 재미 요소만 놓고 보면 1초도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다. 허를 찌르는 미국식 유머로 작정하고 웃긴다.

오프닝 시퀀스부터 패기가 넘친다. 감독을 '존 워에서 강아지 죽인 애'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주연에 대해선 '어떤 놀이지 혼자 주목받고 싶었겠지'라고 표현한다.

'데드풀2'는 액션은 기본이고 거침없는 입담과 유머를 갖춘 마블 히어로 '데드풀'(라이언 레이널즈)이 미래에서 온 위기의 히어로 '케이블'(조슈 브롤린)을 만나 원치 않는 팀을 결성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특수부대 출신 '웨이드 윌슨'은 암 치료를 위한 비밀 실험에 참여한 후 슈퍼히어로 데드풀로 거듭난다. 여자친구 비네사(모레나 바카린)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불행한 일이 생긴다. 미래에서 시간여행이 가능한 용병 케이블을 만나게 되면서 또 다른 전기를 맞이하고 사건이 휘몰아친다.

줄거리만 보고 히어로 영화로 여기면 오산이다. 흔해빠진 액션 코미디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19금 히어로물

인데 가족 영화를 표방해서다.

로맨스 색채가 강했던 1편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 가족애를 넘어선 인간애다. 영화 말미에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짚는다.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든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이 돋보이는 가운데 배우들 또한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라이언 레이널즈(42)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2편에서도 슈퍼 히어로 '데드풀'(웨이드 윌슨)을 맡은만큼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19금 멘트를 거침없이 쏟아내는가하면 "야아", "아후 아파" 등 감탄사를 연발하며 새로운 히어로상을 만들어냈다. 주연뿐 아니라 공동 각본과 제작으로도 참여해 영화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감독 앤서니·조 루소)에서 역대급 악역 빌런 타노스로

분한 조슈 브롤린(50)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 데드풀과 달리 무뎠던 상남자 매력으로 여심을 흔든다.

유일한 여성 히어로 '도미노' 역의 재지 비츠(27)는 걸크러시 매력을 뽐낸다. 모레나 바카린(39)은 레이널즈와 진한 애정 연기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액션을 기본으로 깔고 코미디와 드라마, 휴머니즘이 골고루 담긴 작품이다. 전편을 보지 않은 관객들도 편안히 볼 수 있다. 16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뉴시스



'국민 결혼식' 김국진·강수지
SBS TV '불타는 청춘' 동시간대 1위

방송인 김국진(53)·가수 강수지(51) 결혼식에 힘입어 SBS TV '불타는 청춘'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1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불타는청춘'은 1부 7.0%, 2부 7.8% 시청률을 기록했다. 동시간대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 도움으로 김국진과 강수지가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수지는 "우리 둘 다 썩스러워서 이런 자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리가) 마련되니 행복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신랑 김국진은 신부 강수지를 평생 사랑하고, 봉사하고 공주님처럼 받을 것을 맹세합니까?"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는 김국진 모습은 호뭇함을 자아냈다.

두 사람은 2015년 2월 SBS TV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가상 커플로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었다. 이듬해 8월 교제 중이라고 알려진 두 사람은 23일 백년가약을 맺는다. 예식을 생략하고 가족끼리 모여 식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시간 방송한 MBC 'PD수첩'과 KBS2TV '하룻밤만 재워줘'는 각각 4.7%, 3.2% 시청률에 그쳤다. /뉴시스

서울드라마어워즈, 각극 268작품 경쟁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56개국 268개 작품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55개국 266개 작품이 출품됐다.

유럽이 100개 작품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시아·중동 98개 작품, 북남미를 포괄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50개 작품을 냈다.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11, 9개의 작품이 경쟁 대열에 참여했다.

단편, 미니시리즈, 장편, 코미디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최고의 작품성을 인정받은 1편이 대상을 받는다.

서울드라마어워즈는 2006년부터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해 온 국제 시상식이다. 올해 제13회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은 배우 유동근(62)이다. 2016·2017년 시상식에 이어 세 번째다. 시상식은 9월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글로벌 보이아이돌' 방탄소년단 컴백 무대, '빌보드 뮤직 어워드' 생중계

엠넷, 21일 오전 9시에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통한 새 앨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컴백 무대를 국내에서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엠넷은 21일 오전 9시(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s)를 생중계 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BBMAs에서 '톱 소셜 아티

스트' 부문을 받으며 K팝 대표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도 같은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와 함께 신곡 무대도 선보인다. 엠넷은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BBMAs를 통해 컴백 무대를 갖는 역사를 쓰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 중계 사회는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음악감독 윤상이 맡는다. 전 SBS 아나운서 안현모, 강명석 평론가 등이 해설한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